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찬·반 논란

정책토론회서 나온 양측 입장 차 살펴보니

“시민 설문조사서 81% 찬성…대표적인 명소 만들어야”

“객관·공정성 부족한 조사…환경 파괴로 생태도시 역행”

순천 봉화산은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다. 특히 둘레길은 지난해 ‘전국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순천시가 여기에 출렁다리를 만들어 대표적 명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순천만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봉화산 계곡에 24억5000만원을 들여 184m 길이로 출렁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터져나왔다. 생태도시에 역행하는 환경 파괴 정책이라는 취지의 반발 성명서가 발표됐고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 함께 고민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3년 전인 2014년 처음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태껏 현장 공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일 순천시 연향도서관에서 열린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찬·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출렁다리가 생길 경우 봉화산에 찾아올 변화는 긍정적인 걸까. 환경 훼손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양측 입장을 살펴봤다.

◇“더 많이 찾는 명성이 될 것”=이전식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봉화산이 시민들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봉화산의 경우 도심과 가까워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 지역민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봉화산 출렁다리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출렁다리가 있으면 좋겠

다”는 찬성 의견이 81%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도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순천시 설명이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 1년 이상 방안을 모색해 애초 계획을 변경해 주담 높이와 규격을 낮추고 공법을 바꿔 환경훼손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소장은 “국가정원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 도시를 나타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출렁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는 어떻게, 왜 탄생했을까”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조목 조목 반대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순천시가 추진한 설문조사는 객관성, 공정성이 부족한 조사로, 출렁다리 등 인공시설물이 없어도 사업 예정지에서 순천만정원과 도심, 순천만 습지를 조망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며 사업 추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생태 수도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자연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번 기회에 봉화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출렁다리 대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순천시가 추진중인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3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정책토론회는 찬·반측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순천시 제공>

의견을 내놓았다. 9억원을 들였지만 동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장대공원 인공폭포나 수역원을 투입하고도 순천 브랜드 가치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서면 삼거리 두루미상 등을 언급하며 예산 낭비 우려도 언급했다.

이외 오관영 좋은예산 상임이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예산이 되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확대나, 민주적 토론과 조정을 통한 합의과정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봉화산 출렁다리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한·중 해빙무드에 교류 물꼬 튼 순천시

닝보시 방문 전시회·관광설명회 등 교류 20주년 행사

자매도시 협약·수출 MOU도

순천시가 한·중 관계 해빙 무드를 타고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도시 협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에 나섰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11일 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닝보시를 방문해 미술 작품 전시와 순천 관광설명회 등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대표하는 흑두루미 조형물을 제작해 닝보시에 증정했으며 우호 교류보다 한 단계 격상한 자매도시 협약도 했다.

11일에는 중국 상하이 아우라기업관

리공사와 9억원 상당의 매실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쑤닝(Suning)사와도 11억원 상당의 매실 수출 양해각서(MOU)를 교환<사진>했다.

닝보시 대표단도 다음 달 순천시를 찾아 우호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닝보시는 760만명이 살고 있으며 도심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방직, 기계, 석유화학 등이 발달한 저장성의 대표 도시다.

순천시는 1997년 6월 닝보시와 우호 교류도시 체결 이후 행정, 경제, 관광, 문화·예술, 학생 교환, 도서관 분야 등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주암 한솔영농조합·승주 지역사랑복지협의회

지역 농업 발전 공로 ‘대통령 표창’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힘쓴 농업 법인이 대통령령상을 수상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승주읍에 위치한 (재)지역사랑복지협의회와 주암면 한솔영농조합 법인은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농업 발전에 힘쓴 공로로 대통령 표창<사진>을 받았다.

지역사랑복지협의회는 다문화 농업 학교 운영, 실버대학, 방울이 빨래방 운영, 농촌 반찬나눔사업 활동 등을 펼치며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인정됐다.

한솔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역 농업



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사업, 농산물물류마케팅 사업 등을 펼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우수 농산물 기술 보급과 스마트 팜 단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후계농과 청년농 육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노란 은행잎 정취와 함께 가을 즐기세요

18일 ‘향동 은행나무 아래로’ 축제

노란 은행잎의 정취와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향동 은행나무 아래로’ 축제가 오는 18일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역주민과 나눔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마을축제’를 내걸고 사랑나눔 김치독 행사, 은행잎 놀

이체험, 청년문화기획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거리방송국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청수굴 새들마을 주민협의체의 사물놀이 공연도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과 상인회, 예술가, 청년단체가 소통, 공감하며 마련한 마을축제”라며 가 될 것”이라며, “노란 은행잎 단풍을 이웃과 함께 보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방선거 대비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

순천시선관위 27일까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외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안내, 예방활동,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된다.

지원단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1일 임금은 6만240원(2017년 5만1760원)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선발된 단원은 오는 12월 1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희망자는 지원서 양식을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744-2686.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물로(YOIN)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가임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온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안권 및 예적금발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저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달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예금특판

정기예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의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